

금호타이어 노조 '50% 감산' 태업

12차례 노사협상 결렬...성과금 등 이견 못좁혀

기아차 노사도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놓고 난항

금호타이어의 파업이 '실제 상황'이 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광주 경제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상생을 위한 '대타협'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5일부터 타이어 생산량을 현재보다 50%로 줄이는 태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생산량을 30% 줄인 데 이어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의 70% 수준에 불과한 광주·곡성·평택 공장의 생산량

(하루 7만6천개) 감소 폭은 더 커지게 됐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2차례의 본교섭과 6차례의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등 평행선을 달려왔다.

노조 요구 사항은 ▲임금 7.48% 인상 ▲2008년 주가 성과금 및 2009년 성과금 지급 ▲실질임금 하락분 보전 ▲설비투자 이행 등이다. 사측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재조원이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 임금 인상할 여력이 없다"면서 ▲임금동결 및 정기승호 보류 ▲성과금 지급 불가 ▲학자금, 교통비 등 복리후생

학폭 2010년까지 중단 ▲정원 재설정 ▲품질혁신운동 등을 제시해놓고 있다.

회사측은 올 1분기 593억원의 영업 적자와 1천9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위기 경영 상황에서 이

러한 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광주·곡

성공장의 규모를 평균 70% 수준으로

줄이고 그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706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배수진'까

지친 상태다.

사측은 오는 16일 노조측에 본교섭을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여전 쟁점에 대해 노조와 너무나 협력한 차이가

있어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회사 안팎의 분위기다.

기아차 노사도 14일 현재까지 모두 10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는 이날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 ▲기본급 8만7천709원 인상 ▲실질임금, 생계비 부족분 200%+α 등의 노조측 요구사항 가운데 핵심 정점인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절충안(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오후 3시40분부터 새벽 1시20분까지 근무)을 놓고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수출 물량이 많고 기아차도 지난 2007년 광주지역 생산선액의 26.

3%(5조1천억원)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 경제 위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삼성네트웍스

연말부터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서비스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삼성네트웍스 등 4개 업체가 공공기관의 인터넷전화(VoIP)서비스를 담당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벌인 결과, 이를 업체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 사업은 기존 광전화망 기반의 전국 단일행정전화망 서비스가 2010년에 중단됨에 따라 추진돼 왔다. 특히 이 사업은 연간 행정기관의 전화 이용 요금 예산이 연간 1천100억원대이고 IPTV, 영상전화 등 부가서비스

사업과 연계될 예정이어서 '노른자' 사업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업계는 이 사업이 지난해 말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한 국내 인터넷전화 시장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도 앞으로 인터넷전화를 통해 전화 요금을 기준보다 22% 낮출 수 있어 매년 2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정된 4개 업체도 이번 서비스로 공신력을 획득, 향후 600만회선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용 인터넷전화 사업에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을 놓고 선정된 업체 외에 SK텔링크, 한국케이블통신, 한국몬티스타밸롭等情况 등 총 7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또 인터넷전화 전환 시 주요 회선을 일반전화로 백업하도록 해 비상대비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업체와 이달 말까지 협약을 체결한 뒤 인터넷전화서비스 인프리를 구축하고, 이용약관을 공고해 12월에는 인터넷전화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금호, 지분 매각 연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지분 매각 일정이 연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간사인 맥쿼리는 당초 15일부터 인수제안서를 접수해야 했으나 제안서 접수를 일주일 이상 연기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매각에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비슷한 일부 펀드가 관심을 보이며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일정이 연기된 것은 최대주주인 금호산업(38.74%) 외에도 또 다른 주주가 지분 매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지분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38.74%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진(16.67%), 철일고속(15.74%), 한일고속(11.11%), 동부건설(6.17%) 등도 주요주주로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맥쿼리 증권이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을 우선 추진했지만, 일부 다른 주주도 지분을 매각 의사를 밝혀 협의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버라이어티쇼'

아시아나항공은 여름 휴가철인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국제선 9개 노선 총 52편에 8개팀의 특화서비스 요원을 투입한다. 이들은 해적복장을 한 승무원의 팀승인사를 시작으로 마술쇼를 비롯, 여름용 카테일 즉석제공, 생일 별도 축하공연, 네일아트 및 메이크업 체험, 티로점, 기내패션쇼, 캐리커처 서비스, 승무원 유니폼 착용 후 승무원 서비스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하반기 재래시장 경기 풀릴까

시장경기동향지수 상황 안정세

하반기부터 재래시장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시장 상인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시장경기동향지수(M-BSI)가 지난 2월 최저체감지수를 기록한 이후 3월부터 다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영향과 설 명절 이후 소비 감소로 지난 2월 체감 M-BSI는

7개 업종에 대해 매출, 상품판매가격 등 경기전반에 대한 체감 및 전망 지수를 산출한 것으로 매월 전국 16개 시도 전통시장 내 1천 24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수입물가 석달째 상승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상승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동반 상승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수출입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5.1% 상승했다. 이는 작년 5월의 10.7%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수는 지난 3월 1.3% 올랐지만 4월 7.8% 뛰어졌고 5월에도 3.0%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9% 하락하면서 3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허병의 국세청 차장 사의 표명

고위직 인사 태풍 부나

지난 6개월간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허병의 국세청 차장이 내부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허 차장이 전날 간부들에게 물려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허 차장은 내정자가 발표된 이후 간접적으로 응퇴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행사 22회 동기인 김창한 부산지방 국세청장과 이승재 중부지방국세청장도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대구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이 명예퇴직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385.56 (+7.44)
코스닥지수
476.25 (+0.20)
금리 (국고채 3년)
3.96% (+0.01)
원·달러 환율
1,293.00원 (-22.0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롯데 '빼빼로' 캐나다서 리콜 조치

알레르기 가능성 미표기

롯데와 크라운의 과자 제품이 캐나다에서 긴급 리콜됐다.

14일 캐나다 식품청(CFIA)에 따르면 CFIA는 최근 빼빼로와 산도 등 10개 국내 브랜드 수라상의 과자 제품까지 총 10개 한국산 과자는 우유

나 달걀,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들 식품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된 한국산 과자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하게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한 현지 업체가 이들 10개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회수에 나섰다고 CFIA는 전했다.

/연합뉴스

근린생활/편집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아파트/빌라 경매정보사 010-2611-5598

주택/재개발 경매이사 010-5878-0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근린생활/편집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대표이사 010-7570-7525

주택/재개발 대표이사 010-5878-0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대표이사 010-7570-7525

주택/재개발 대표이사 010-5878-0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p